

네팔에 제2호 광주진료소 들어선다

광주시, 네팔측과 올 하반기 설립키로 협의 카트만두 북동쪽 25km 상구...광주일보 후원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아시아 광주진료소가 캄보디아에 이어 두번째로 올 하반기 네팔에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네팔에 추진중인 제2호 아시아 광주진료소 설립과 관련, 마다브 쿠마르 네팔 전 국무총리와 네팔 지방교육기관인 CTEVT 람 하리 라미첸 대표 등 방문단이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과 접견하고 광주진료소 설립 상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민간 협력자들과 함께 아시아지역에 광주진료소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특히 네팔에 추진중인 제2호 광주진료소가 네팔 국민들의 의료 보건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광주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쿠마르 전 총리는 “어려울 때 광주시가 손을 내밀어줘서 감사하다”면서 “광주진료소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네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시장은 “광주의 뜻있는 많은 분들이 아시아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서 “광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광주시도 네팔 뿐만 아니라 형편이 닿는 한 이러한 뜻있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네팔에 들어설 제2호 아시아 광주진료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동쪽으로 25km 떨어진 상구(Sangkhu)지역에 신축중인 네팔 직업교육기관 CTEVT의 4층 건물 중 1층 330여㎡(100여평)을 10년간 무상 임차해 사용하기로 했다.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의료장비 등이 진

료소에 갖춰지면 늦어도 오는 9월께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네팔이 제2호 아시아 광주진료소 건립지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4월 규모 7.8의 강진으로 9000여명이 사망하고 주택 90여만호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을 당시 광주시가 민간 의료진, 119소방대 등을 긴급구호단으로 파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의료진, (사)희망나무, 광주시 소방본부 119구조대원 등이 참여해 3차례 의료봉사 및 구호활동을 벌였고, 텐트와 모포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때마침 광주시는 지난해 3월 캄보디아에 이어 제2호 아시아 광주진료소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모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과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 (사)희망나무를 지원단체로 선정했다.

(사)희망나무 측은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긴급 구호만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하고 지난해 8월과 12월 네팔 현지 후보지를 둘러봤으며, 최근 CTEVT와 무상 임차 내용의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광주일보가 후원한 첫번째 아시아 광주진료소는 지난해 6월20일 캄보디아 캄푹스푸주(州)에 건립돼 해외 의료지원사업, 문화·체육교육사업, 환경정비사업,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현지 의료진을 채용해 활발히 주민 진료를 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의료봉사 단체가 연 6회 정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오른쪽) 광주시장이 14일 네팔에 추진 중인 제2호 아시아광주진료소 설립과 관련해 마다브 쿠마르 네팔 전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진때 광주 인술 감동...진료소 기대”

광주 온 쿠마르 네팔 전 총리

네팔에 들어설 제2호 아시아 광주진료소 설립 협의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마다브 쿠마르 네팔(Nepal Madhav Kumar) 전 국무총리는 14일 “네팔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광주에서 보내주신 의료진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됐다”고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네팔 국민들은 당시 선진화된 광주의 인술을 접했고,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해준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그 모습이 네팔 국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때문에 네팔에 건립될 아시아 광주진료소 건립사업 진행에 기

대가 크다”면서 “광주진료소를 통해 우리의 의료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쿠마르 전 총리는 “네팔 광주진료소는 단순한 의료 지원이 아닌 광주시와의 협력에 있어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네팔도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광주와 더 많은 정신적 교감이 필요하며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캄보디아 제1호 광주진료소가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네팔 제2호 광주진료소를 통해 앞으로 시멘트공장과 수력발전소 등 네팔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한국의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1970년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보던 마가렛(뒷줄 왼쪽 첫번째)-마리안느(뒷줄 오른쪽)수녀가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록도 천사 수녀’ 노벨평화상 추천키로

고흥군, 소록도병원 100년 맞아

고흥군이 국립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5월 17일) 기념사업으로 40여년간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헌신했던 수녀들의 노벨평화상 추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1960년대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에서 간호대학교를 졸업한 마리안느 스토거(82)와 마가렛 피사렛(81)수녀는 고흥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20대 후반의 나이에 소록도로 들어와 40여 년간 한센인들을 돌봤다.

국내에서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넘쳐나던 시절 마리안느-마가렛 수녀는 한센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치료하는 모습으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고, 피폐했던 한센인의 삶의 질을 높여내는 역할을 했다.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계기로 소록도에는 해마다 전국에서 의료봉사단과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잇는 등 ‘자원봉

사천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마리안느-마가렛 수녀는 간호사이지만 한센인에게 ‘할매’로 불리며, 소록도에 머무는 동안 겸손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은 소록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두 수녀가 거주했던 소록도 사택 앞에는 아직도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문구가 한국말로 또렷이 적혀 있다. 안타까운 점은 마리안느 수녀는 현재 암투병중이고, 마가렛 수녀는 치매로 요양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수녀의 공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봉사의 숭고한 뜻을 널리 기리기 위해 올해부터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의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마리안느-마가렛 수녀 선양사업은 고흥군과 (사)마리안느마가렛, 국립소록도 병원을 비롯한 한센인과 개별후원자 등이 함께하는 법관민 참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알립니다

제60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제60회 신문의 날을 맞아 표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부문: 제60회 신문의 날 표어
 - 공모기간: 2016년 1월 18일(월) ~ 2월 26일(금)
 - 공모방법: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공모신청서 작성
 - 출품규격 및 출품 작수: 20자 이내, 개인별 2점 이내
 - 시상내역:
 - 대상 1명 (상금 100만원과 상패)
 - 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과 상패)
 - 문의처: 02-733-2251/2 한국신문협회
- ※공모 소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光州日報社

스마트팜 4000ha 조성...농식품 ‘수출 침범’으로

경제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해 첫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농식품부=새해 업무 키워드는 단연 6차 산업이다. 농산물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한 가공·유통·수출·관광 등 4중세트를 앞세워 6차산업 시스템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농수축산업), 2차 산업(제조업), 3차 산업(서비스·문화·관광업 등)을 연계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모형의 산업을 의미한다. 농식품 수출의 침범이 될 스마트팜을 4000ha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배시설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세입자들이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이 늘고 있지만 운용할 곳이 마땅찮은 현실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투자펀드(Pool)를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펀드는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넘겨받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자금을 배분해 장기적·안정적으로 굴리는 개념이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올 2분기 중에 출시한다.

◇국토부=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5만6000 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작년 확보한 부지(2만 4000 가구)를 합치면 3년간 총 13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마련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올 1분기 중앙·지방정부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작년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으로 잡았다. 또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를 약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산입부=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단계별 예로를 해소해 올해 1조5000억원, 내년 2조원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정위=소비자들이 리콜·판매중지 사례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른 김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과 중국 대형마트 입점 기업을 확대해 수출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현지 입맛에 맞는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도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4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연남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면접준비실전과정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사·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